

복음과 상담
제21권, 35-60

통합적 전인치유모델에 관한 연구 -하나님나라와의 연관성 중심으로-

김 성 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전인치유의 정체성과 효율성을 보다 심도있게 담보하기 위해 통전적 인간이해에 바탕을 둔 통합적치유모델을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교회에는 전인치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사역의 형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인치유적 접근 원리와 방법에 신학과 심리학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말미암아 많은 폐해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체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충족하는 전인치유적 원리와 방안을 세우기 위해 성경과 바른 상담신학에 뿌리를 두면서도 전인치유 현장을 고려한 통합적전인치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적 전인치유이해의 상담신학적 준거틀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하나님나라 신학과 연관하여 기존의 다양한 전인이해와 전인치유모델들을 탐색하였다. 영혼과 육체를 실체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헬라철학의 영향을 배제하는 가운데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문화적 차원과 인간 인격의 지, 정, 의 차원을 균형있게 아우르는 통전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종말론, 성령론과 연관된 통합적 전인치유 모델의 한 전형을 제안하였다.

중심단어 : 전인, 하나님나라, 통합적 전인치유, 재창조, 종말론

• 논문 투고일: 2013년 9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12일
*광신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3년 11월 2일

I. 여는 글

정보화와 다원화로 대변되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 가운데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 가운데 소위 문명적 발달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번영의 그늘아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원의 질병과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라고해서 예외는 아닌 듯하다. 왜곡되고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자살, 이혼, 성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와 우울증, 중독증 등 각종 정신질환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점 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과 바른 상담신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문화 환경적 차원의 다양한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인간, 자연계 간의 총체적 조화와 회복을 지향하는 통합적 기독교전인치유의 접근방향과 원리들을 모색하는 해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사실 기독교상담 분야에 있어 신학과 심리학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는 문제는 그 정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만약 기독교상담에 있어 통합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과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통전성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Brian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신학적 인간관과 심리학적 전인이해를 아우르는 전인적 인간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치유 접근모델을 모색하는 일은 통합운동에 있어 중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

1) E. E. Brian, "Integrating and Integrators: An Organizing Framework for a Multifaceted Process for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5(1996): 119. 사실 기독교상담 분야 뿐 아니라 일반상담분야에서도 20세기 후반부 이후부터 일반상담심리분야에서도 특정한 이론에 집착하지 않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통합적용을 보는 전인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한 절충적이고 통합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박노권, 『종교심리학』 (서울: 세종문화사, 1999), 45-49.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독교전인치유가 지닌 독특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상담신학적 토대가 미약한 무분별한 전인치유접근의 위험성에 대해 살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히브리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되 전인치유적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통전적 인간에 대한 논의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합적전인치유의 상담신학적 준거들을 제공해 줄 하나님나라신학과의 연관성을 논의한 뒤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몇몇 치유모델들을 살펴보고 통전적 인간이해에 근거한 하나의 통합적 전인치유모델을 제안하고자한다.

II. 펴는 글

1. 기독교전인치유의 의미

기독교전인치유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전인에 대한 이해와 치유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상담학적인 차원에서의 전인개념을 보다 깊이 다루게 될 것이므로 먼저 기독교적 치유의 포괄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관점들과 연관 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인류의 역사 속에 치유(healing)라는 용어는 오랫동안 육체적 질병의 회복과 연관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지만 근래에 와서 치유가 건강이나 질병의 개념과 연관되어지고 육체의 병, 정신의 병, 영의 병, 그리고 사회의 병을 유발하는 원인들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면서 보다 전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기독교계에서도 건강의 개념이 인간의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역동적 접촉이 회복되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안녕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

다.²⁾ Peter Wagner와 함께 치유사역을 통한 소위 제3의 성령의 물결운동을 일으킨 John Wimber는 치유의 개념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차원의 온전함과 안녕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영적대결구도와 특성을 강조한다.³⁾ 김태수는 전인치유란 영혼의 집인 육체와 사유를 담당하는 마음과 형이상학적 차원의 영역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의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회복과정으로 보았다.⁴⁾

박행렬은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전인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의 질병이 하나님 창조당시의 질서로 회복되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자신과 이웃 환경 등 하나님과의 조화, 질서, 통합, 화해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치유를 무질서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타락한 인간이 육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당시의 사회적 전환경적 회복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⁵⁾ 박행렬이 기독교치유개념을 전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나라의 개념 등과 연관시킨 것은 상담신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총체적치유개념을 하나님 나라 신학과 연관시키면서 단순히 창조당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나라의 종말론적 특성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2) 기독교의료위원회, “건강, 치유, 온전함”,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34권(1990): 188.

3) John Wimber, *Healing* (Plecentia, CA.: Vineyard Ministries International, 1982), 92.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대결구도와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적 축사적 치유접근은 상담신학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할 뿐 아니라 치유현장에서의 많은 부작용을 초래 할 위험성이 있다.

4) 김태수,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의미와 방법”,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권(2003): 169-173.

5) 박행렬, “총체적치유목회, 왜 필요한가”,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상담과 선교」 제10권 (1995): 40-41. 성령 하나님의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의 재창조 사역과 깊이 연관된 기독교전인치유의 상담신학적 함의는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 될 것이다.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연관된 기독교적 전인치유는 총체적이고 전인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예텐의 ‘창조질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니라 복음과 삼위하나님 특히 성령하나님의 현존하는 역사로 인한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재창조사역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Louw는 기독교치유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의 산물임을 밝히면서 복음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는 위로와 지지와 변화와 성장 그리고 궁극적 변혁의 차원을 내포하는 동시에 종말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⁶⁾

이상에서 기독교전인치유가 단순히 질병상태에서의 벗어남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며 전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나라와 연관하여 보다 완전한 조화와 통합 그리고 성숙을 지향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전인치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산물이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약속의 성취로 인한 위로와 변화,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함의를 지니며 하나님나라의 도래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과 사회와 생태계를 포함한 전인적 회복과 종말론적 재창조와 관련되는 보다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⁷⁾

기독교전인치유의 독특성은 첫째 치유의 근원적 토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전인적 인간이해에 기초한 통전성이 강조된다는 점, 셋째 하나님나라와 연관된 종말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넷째 단순한 질병의 회복을 넘어선 보다 온전한 통합과 전

6) D. J.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A Theological Design for Basic Theory, Anthropology, Method and Therapy* (Cape Town: Lux Verbi, 2000), 6, 20-23.

7) 김성환, “전인치유를 위한 내적치유에 대한 묵회상담학적 고찰” 한국성경적상담학회, 「성경과 상담」 제6권 (2006): 11; 김남식,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한국상담선교연구회, 「상담과 선교」 제10권(1995): 4-12; 정정숙, “치유상담에 대한 이해”, 한국성경적상담학회, 「상담과 선교」 제10권(1995): 58-61; 강경미, “기독교영적치료와 심리치료의 통합”,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권(2003): 126-140.

인적 성숙 그리고 총체적 관계의 회복의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2. 전인치유의 함정과 통전적 인간이해의 필요성

갑자기 찾아온 심한 우울증인 듯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한의원을 찾아갔다. 그 의원의 한의사는 진맥을 한 후 기와 혈이 약하니 침을 맞고 약재를 지어먹으면 무조건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 다른 한의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난 한의사는 우울증인 것 같은데 침을 맞고 약재를 쓰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상담가에게 상담도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있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처음에 만난 한의사는 침이나 약재 등 물리적 화학적 변화 다시 말해 육체적 변화를 통해 온전한 치유에 이를 수 있다는 육체적환원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한의사는 그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통전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치유의 현장에서 환원주의나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폐해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A 목사는 최근 모든 의욕이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우울한 기분에 휩싸여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나름대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심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기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더 강해져 스스로에 대해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설교를 하거나 목회 활동 중 자신의 내적고통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점차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정신과의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로 보여 스스로 용납 할 수

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도저히 벗어 날수 없을 것 같아 점점 더 큰 좌절감에 빠져들고 있다. B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얼마 전 꽤 알려진 일반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기초로 한 전문상담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충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가졌던 최근의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 곳에서 말하는 신비한 존재의 영적인 힘과 에너지에 의해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았다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 해 보이는 그 상담기법에 더욱 더 매료되면서 그토록 열심히 있던 신앙의 열정이 점차로 식어지고 있다.

C 성도는 어떤 치유 집회에 참여하여 그동안 오래 동안 자신을 괴롭혀오던 심각한 조울증의 문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영과 자신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과 자신의 가계에 흐르는 악한 영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귀신을 쫓아 내기 위해 영험하다는 사역자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도 받고 금식도 하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지만 그 증상은 점 점 악화되고 있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D 성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전인지유사역을 전문으로 한다는 어느 치유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곳에서 자신의 문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정서적 상처와 나쁜 기억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에 따라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나무 방망이로 아버지를 상징하는 물건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시간을 가졌다. 상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태반 속이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했다. 당시에 조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고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 A목사는 ‘영적환원주의’에 휩싸여 자신의 우울증의 문제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전문기관

의 상담프로그램에 참석하였던 B 청년은 심리학적환원주의'에 빠져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⁸⁾ C성도는 인간의 제반문제를 귀신의 역사로 보는 극단적 축사주의에 빠져 근본적인 치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D성도는 성경에 뿌리를 둔 인간에 대한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이해가 결여된 채 심리학적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접목한 왜곡된 전인치유적 접근방식의 희생자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성경에 뿌리를 둔 통전적 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며 통합적 차원의 기독교전인치유의 의미와 방향과 방법론들이 바르게 제시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기독교전인치유만이 지니는 독특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현장성, 전문성을 담보한 통합적 전인치유모델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3. 통전적 전인이해의 신학적 근거

대부분의 기독교전인치유에 있어 인간의 영적인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언급한다. 그러나 기독교 전인치유를 위한 성경에 근거한 통전적 전인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다시 말해 영적인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사회적인 면을 지닌 인간존재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인간의 각각의 차원에 대한 실체적 분리와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8)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환원주의는 인간의 겪는 모든 제반문제를 영적시각에서 영적인 문제로만 환원하여 진단하고 영적인 차원의 해결만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심리학적 환원주의는 인간의 문제를 심리학적이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만 진단하고 그 심리학적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접근방식이다.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인으로서의 인간이 영적인 차원, 심리적 차원 뿐 아니라 육체적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을 지닌 존재임을 감안하면 치유적 접근에 있어 육체적환원주의, 사회문화환경적 환원주의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 특히 목회치유현장에는 정신분열 증상을 무조건 귀신들린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적 치유시기를 놓쳐 퇴행에 이르게 하는 등의 영적환원주의적 치유접근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아니면 인간의 각 차원의 유기적 차원의 연결성을 인정하면서 단지 개념적 정의적 차원의 구분을 통한 통합적 통전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기독교전인치유에 있어 인간의 영적인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사회적인 면에 대해 접근 할 때 성경적이고 히브리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각 차원의 실체적 구분을 배제하고 각 차원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인정하면서 단지 개념적 정의적 차원의 구분을 통한 통합적이고 통전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 전인치유적 접근에 있어 혼선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분설과 삼분설을 살펴보자. 기독교 전인치유적 접근에서 무분별하게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삼분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영과 혼과 육체가 실체적으로 분리 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한다. 삼분설 지지자들은 영, 혼, 몸의 각각의 삼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첫 번째, 인간의 물리적 요소인 ‘몸’으로 인간 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역시 공유하는 요소이다, 둘째로는 ‘혼’으로서 이성과 감성의 근거이며 또한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정신적 요소를 지칭한다. 혼은 동물과 인간만이 소유하는 것이며 동물과 인간의 혼의 차이는 그 복잡성과 정도의 차이로 이해된다. 셋째로 영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며 인간들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영적인 자극들에 대해 반응 할 수 있는 영성의 좌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세요소가 실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실체적 삼분설과 맥을 같이 하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진 존재로 보는 실체적 이분설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를 이원론적으로 파악했던 플라톤적 세계관이 유추적으로 반영되어 있다.⁹⁾

9)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5), 341-342;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5), 204-206, 346.

따라서 인간의 영, 혼, 육 혹은 영혼과 육체가 실체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실체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성경에 뿌리를 둔 히브리적 인간관의 전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통합적 전인치유의 실효성, 전문성, 적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적, 심리적, 육체적,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의 기능적, 개념적 구분을 인정하는 인간의 통전성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4. 하나님나라와 통합적 전인치유의 연관성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연관시키기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실재가 수여되고 받아들여지는 구속과 구원의 영역 즉 ‘비종말론적인 영역(realm)’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개념보다는 통치개념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성경에서 예언되고 예수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종말론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영역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왕으로서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종말론적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인 차원과 미래적 차원이 함께 존재한다.¹¹⁾ Ladd도 하나님 나라를 ‘영역’ 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지어 해석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특정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종말론적 영역’이나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우주의 왕 이요

10) S. Aalen, "'Region' and 'House' in the Kingdom of God in the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8(1962): 215-240.

11) W. G. Kummel, *Promise and Fulfillment: The Eschatological Message of Jesus*, trans. D. M. Barton (London: SCM, 1957), 107-155; H. Paul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ohn Richard de Wit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75), 136.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역동적 출현’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이 자신의 통치에 굴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에 뛰어드셨다는 것이다. Ladd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하나님의 역동적 통치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밀고 들어와 활동함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활동이며 둘째, 신적활동으로 시작된 축복의 사건이며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하였다.¹²⁾

바울을 통해 제시된 성경의 인간이해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동시에 통전적이다. 바울은 인간을 종말론적인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빛 가운데 이해하였고 이 종말론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바울은 인간을 묘사하기 위해 *σὰρξ, σῶμα, ψυχή, καρδιά, πνεῦμα* 등과 같은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헬라철학적 인간관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 혹은 삼분법적으로 나누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격적 특성을 지닌 인간의 전체성과 전인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또한 바울은 인간을 하나의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인간 동료 그리고 물질적인 자연계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통전적 존재로 보았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 역사 속에 역사적 실체로 임한 하나님나라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새롭고 역동적인 왕적통치 안에서 통전적 전인회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을 지닌 종말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바울이 이해한 종말론적 인간은 ‘이미’와 ‘아직’의 역동적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

12) G. E.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74-75.

림을 통해 온전히 임할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며 새로워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발호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유혹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전인적 존재인 그들의 삶의 다양한 차원에 상처와 죄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역동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¹³⁾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나라에 대한 개념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존재하는 종말론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기독교 전인치유를 이해하는 전체적 준거틀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문화 환경적 다양한 차원을 지닌 인간의 전인적치유와 전인적 회복이 바로 하나님나라의 역동적 사역과 본질적으로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나라의 도래로 인한 왕 되심과 통치가 인간의 전 존재와 역사 속으로 밀고 들어와 전인적 인간존재의 다양한 차원에 미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의 회복에 깊이 있고 생명력 있게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전인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5. 통전적 전인이해와 통합적 전인치유모델

1) Schwartz의 통합치유모델

Schwartz는 인간의 질병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 학제간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인간을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등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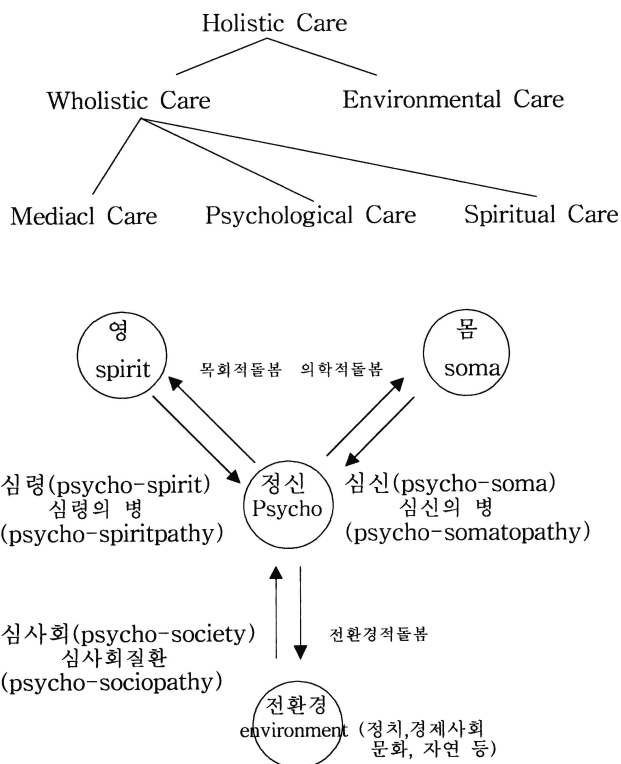
13) H. W. Robinson, *The Body* (London: SCM, 1952), 8-9; P. J. Achtemeier “An Apocalyptic Shift in Early Christian Tradition: Reflections on Some Canonical Evidenc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5, no. 2 (1983): 237.

다룬다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치유접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차원을 통합한 나뭇대로의 통전적 치유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생리학적(biological), 개인적(personal), 환경적(environmental), 영적(spiritual) 차원에서 진단하고 각각 차원의 당면문제들과 최근 변화들 그리고 각 측면에 영향을 미친 배경적 요소들을 살펴 종합적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치유 접근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통전적 인간론과 상담신학적 차원에서의 고민과 통합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단순히 실효성을 강조한 기능적 통합모델이라 할 수 있다.¹⁴⁾

2) 박행렬의 통전적치유모델

박행렬은 기독교적 치유가 그 자신의 하나님나라신학과 전인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자연환경적 차원을 망라하여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통합적 치유모델을 제시하였다.

-
- 14) G. E. Schwartz, "Testing the Biopsychosocial Model: The Ultimate Challenge Facing Behavioral Medicin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1982): 1040-1053. Schwartz는 Arizona 대학의 심리학, 신경생리 및 정신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Yale대학 사회심리학센터 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임상심리 및 사회심리학, 신경생리학, 정신의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백편의 논문과 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의 치유와 건강문제에 대한 통전적이고 통합제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Schwartz와 유사하게 Witmer와 Sweeney도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종교학 등 다양한 학문의 학제적 통합을 통한 전인건강회복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생태체계원리 가운데 인간의 영, 몸, 마음, 공동체의 통전적 회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Schwartz처럼 성경과 상담신학적 토대 위에 제시된 통합치유 모델이 아닌 통학제적(interdisciplinary) 통합치유모델에 불과하다. cf. J. M. Witmer & T. J. Sweeney, "A Holistic Model for Wellness and Prevention over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1992): 140-148.

〈그림 1〉 박행렬의 통전적 치유체계¹⁵⁾

필자는 앞서 기독교적전인치유를 위한 통전적 인간모델을 제시하게 위해서는 성경에 뿌리를 둔 히브리적 인간관 즉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실체적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전인적 관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바 있다. 이 모델에서 인간의 영, 혼, 몸, 전환경이 서로 연결되는 화살표를 통해 연결되어 서로 간의 연관

15) 박행렬, 『내적치유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치유, 1994), 48-51. 박행렬은 의사이지 만 인간의 육체적 질병의 치유문제 뿐 아니라 전인적 건강회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의학 외에도 목회학, 선교학, 상담학, 영성신학 등을 공부하였고 대학교와 선교와 목회 현장에서의 다양한 치유사역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전인치유 이론과 적용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 영역의 실체적, 유기적 연결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목회적돌봄, 의학적돌봄, 환경적돌봄을 통해 심령의 병, 심신의 병, 심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기독교전인 전인치유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목회적 돌봄이 영과 정신과의 상호작용에 그리고 의학적 돌봄이 몸과 정신에 전 환경적 돌봄이 정신과 전 환경에 집중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울증이나 중독증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돌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목회적 돌봄을 일차적으로 영과 정신을 질병을 치유하고 조화를 회복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목회적 돌봄에서도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영적차원, 정신적 차원 뿐 아니라 육체적 차원,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을 함께 지닌 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전적 치유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 모델에서 하나님나라신학을 말하고 있지만 전인치유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나라의 역동적 치유의 역사와 재창조사역 그리고 종말론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전인치유는 인간 자신만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인간존재의 영, 혼, 육,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에 대한 인간적 치유노력의 총합이 아니다.¹⁶⁾ 하나님나라의 도래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듯이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연관된 기독교전인치유접근에서는 궁극적 치유와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이 점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져야 한다. 그리

16) 잘 알려진 Howard Clinebell도 인간에 대한 통전적 전인치유 접근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 몸, 이웃관계, 환경과의 조화, 사회조직 안에서의 친밀감, 진정한 자아의 발견, 영의 회복을 망라하는 전인적이고 통합적 치유와 성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Clinebell의 치유모델도 하나님나라와 연관된 통전적 전인치유접근의 보완이 필요하다. cf. H. Clinebell, *Ecotherapy: Healing Ourselves, Healing the Earth* (New York: Haworth Press, 1996), 1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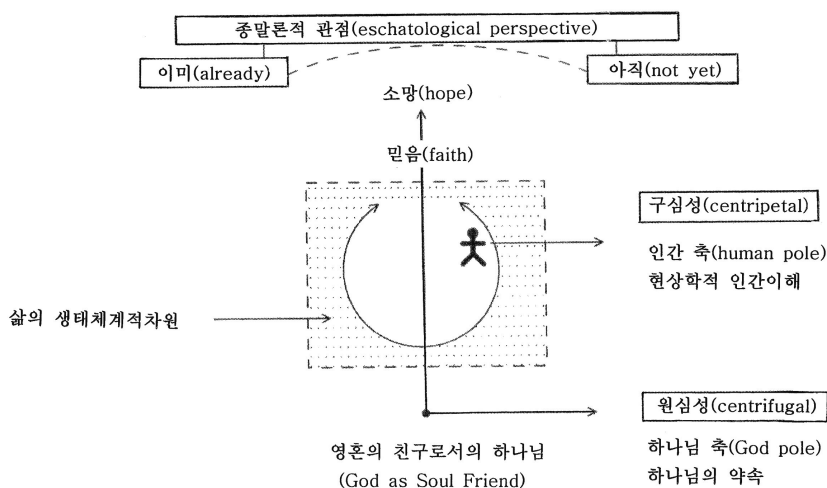
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상태 가운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궁극적이고 완전한 전인적 회복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도 반영되어야 한다.

3) Louw의¹⁷⁾ 수렴모델 (Convergence Model)

기독교상담의 전인치유적 접근에 있어 ‘계시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현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Heitink는 양극성모델(bipolarity model)을 제시하였다. 그는 양극성모델에서 근본적으로 신학과 실험적 관찰, 목회적 돌봄과 심리학, 계시와 경험, 믿음과 종교, 영혼의 돌봄과 심리치료간의 양극적인 긴장관계(the bipolar tension)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이틴크는 계시와 현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각자 스스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Louw는 하이틴크가 인간과 하나님을 서로 동등한 존재로 놓고 상관(correlation)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로우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서는 소홀한 가운데 케리그마적 선포에 강조를 둔 폐쇄적 상담접근과 인간에 대한 실존적 과학적 이해에 의존하는 현상학적 접근 또한 양쪽 다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계시중심의 신학적 선포적 환원주의와 경험중심의 현상학적, 심리적 환원주의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해석학적인 접근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였다. 그는 계시와 실존을 양극을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실존

17) Louw는 남아공스텔렌보쉬대학의 목회신학과 목회상담학 교수로 세계실천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보수적인 화란개혁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진 그는 신학과 철학, 상담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통찰과 식견을 바탕으로 목회학, 실천신학 그리고 목회상담학과 연관된 다양한 이론들을 정립하였다. 그는 특히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관련된 치유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다양한 이론과 적용모델들은 실천신학 전반 특히 목회적 돌봄과 상담 분야에서 신학과 현상학적 인간학을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깊이 있고 균형잡힌 증거들을 제공해준다.

적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역사 안에 매개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빛 가운데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수렴모델(convergence model)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¹⁸⁾



〈그림 2〉 Convergence Model¹⁹⁾

- 18) G. Heitink, *Practical Theology: History, Theory, Action Domains*, trans. Reinder Bruinsma (Grand Rapid, MI.: Eerdmans, 1999), 83–92;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26–33, 61–64.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문제에 있어 심리학보다 신학의 우선성과 우위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다. cf. E. L. Shostrom & D. Montgomery, *Healing Love: How God Works within the Personality* (Nashville, TN.: Abingdon, 1978), 128; L. Payne, *The Broken Image: Restoring Personal Wholeness through Healing Prayer* (Westchester, IL.: Crossway, 1981), 178; L. J.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7), 33–52; G. R. Collins, “An Integration View,” in *Psychology & Christianity: Four Views*, eds., E. L. Johnson & S. L. Jon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104–105; Jack P. Pascoe, “An Integrative Approach to Psychological and Christian Thought Based on a Christian World View,”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8, no.1(1980): 12–26; S. M. Clinton, “The Foundational Integration Mode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1990): 115–122.

- 19)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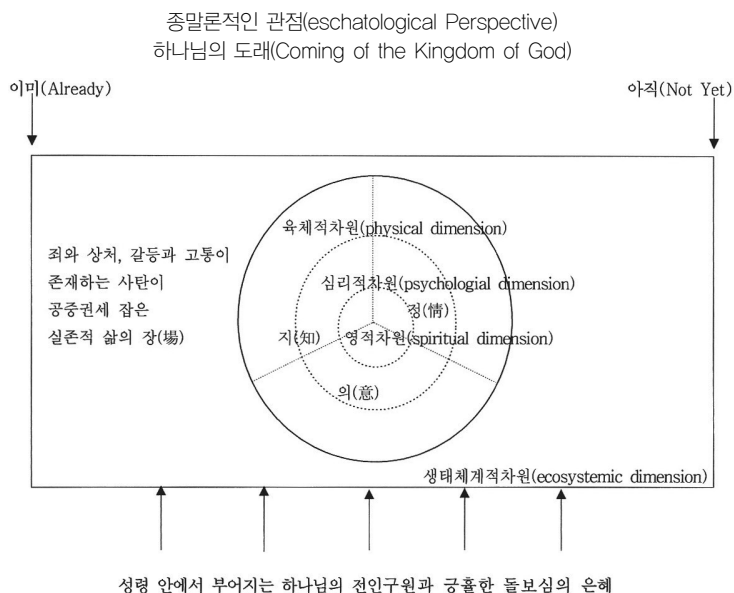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보면 로우는 인간을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에 의해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와 연관된 ‘이미(already)’와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연관된 ‘아직(not yet)’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종말론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그의 종말론적 관점은 성령론과 직결된다. 그는 종말론적 존재인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는 성령은 실존적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부활의 승리의 삶과 소망의 삶이 가능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인 묵회적조우에 있어 하나님을 원심성의 중심인 영혼의 친구로 표현한다. 실존적 삶의 생태체계적 차원을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을 구심성의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인간에 현상학적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우에게 있어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 차원을 지닌 종말론은 실존적 고통으로 열룩진 이 세상을 믿음(faith)과 소망(hope)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평안과 통합과 화해를 가져다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실재와 삼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표식이다.²⁰⁾

4) 통전적 전인치유모델 (Holistic Whole-person Healing Model)

이미 살펴 본대로 기존의 다양한 기독교전인치유 모델들이 인간의 영적차원, 정신적차원, 육체적차원, 사회문화-생태환경적 차원을 다룸에 있어 인간의 각 요소의 통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모델을 제시할 때는 각 영역의 실체적 분리를 인정하는 헬라 철학적 인간관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들은 성경에 뿌리를 둔 상담신학적 관점에서 치유의 궁극적 주체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차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나라와 연관하여 ‘실체적 차원’의 구분이 아닌 기능적, 개념적

20) Louw,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61-66.

차원에서 인간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구분과 각 차원의 유기적 연결과 통전성을 강조하는 통합적 전인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 통합적 전인치유모델²¹⁾

이 모델은 Louw의 관점을 받아들여 하나님나라의 도래의 신학적 토대위에 종말론과 성령론과 연관된 통전적 인간이해와 통합적 전인치유 접근의 한 유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님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개의 차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과거적 차원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현재적 차원은 성령의 현존하는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나라를 말한다.

21) 김성환, “전인치유를 위한 내적치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한국성경적상담학회, 「성경과 상담」 제6권 (2006): 11. 이 모델은 Louw의 수렴모델을 바탕으로 필자가 구성하여 제안하였던 총체적전인치유모델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그리고 미래적 차원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나라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eschatological tension)속에 존재한다.

세 개의 원으로 표시된 인간 모델은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인으로 보는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 인간론의 틀을 바탕으로 실체적 분리가 아니라 개념적, 기능적인 차원에서 분리된 인간의 영, 혼(심리), 육의 요소와 인격적 삼 요소 지, 정, 의의 차원들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간략히 표현 해 본 것이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가장 안쪽에 있는 점선으로 이루어진 작은 원은 인간의 영적차원(spiritual dimension)을, 그 다음 크기의 점선으로 이루어진 원은 인간의 심리적 차원(psychological dimension)을 그리고 실선으로 이루어진 가장 바깥쪽 원은 인간의 육체적 차원(physical dimension)을 나타내고 있다. 바깥 쪽 원이 실선인데 비해 안쪽의 두개의 영과 정신을 나타내는 안쪽의 작은 원이 점선으로 된 것은 실체적, 본체론적인 차원에서 나누어 질수 없고 개념적 기능적 차원에서만 나눌 수 있음을 표현한다. 가장 바깥 쪽의 몸을 나타내는 부분이 실선으로 표현된 것은 영혼과 육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통전적 인간의 외부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바깥 부분인 몸을 나타낸다. 3중으로 그려진 원은 다시 3개의 점선으로 그려진 3개의 부채꼴 모양의 섹터(sector)로 나뉘어져 있다. 각 섹터는 인격의 삼요소인 지(知), 정(精), 의(意)를 나타내는데 각 섹터가 점선으로 나뉘어 진 것은 인간의 영, 혼, 몸의 분류가 단순히 개념적, 기능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듯이 인격의 삼요소인 지, 정, 의의 분류도 실체적, 본체론적 구분이 아니라 개념적, 정의적 차원에서만 가능함을 나타낸다.

실선으로 이루어진 바깥 쪽 원을 제외한 안쪽의 원들의 경계와 인격적 요소를 나누는 부채꼴의 경계가 점선으로 처리 된 것은 도로의 차선 구분을 연상하면 된다. 도로의 1차선, 2차선, 3차선 등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동시에 연결된 것처럼 본 모델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차원, 정신적 차원, 육체적 차원, 혹은 인간의 인격적 요소인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등의 경계를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인간 존재의 여러 차원과 요소가 실체적 혹은 본체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단지 개념적, 기능적, 혹은 정의적 수준에서만 분리 될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통전적 인간이해와 통합적 전인치유 접근을 보다 명확하게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위의 그림에 의하면 개념적으로는 인간의 영적인 차원 안에 지, 정, 의의 차원이, 심리적 영역에도 지, 정, 의의 요소가 심지어 인간의 육체적 차원에서도 지, 정, 의의 요소가 내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인격의 3요소인 지, 정, 의 차원도 각각 영적, 정신적, 육체적 차원과 유기적으로 관련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위의 논의가 진위 여부를 추론하기 육체적 차원이 실제로 지, 정, 의의 인격요소를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육체가 지적인 차원을 지니는지 그 예를 들어보자. 사람의 신체 안에는 자신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어하는 센서와 조절기능이 존재한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적인 감각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것이 육체 자체가 지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육체가 지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실 예로 인간의 몸의 세포 안의 DNA를 들 수 있다. DNA는 인간의 세포를 이루는 육체의 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 천문학적인 정보가 농축된 지적결정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정서적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실 예로 인간이 흥분하거나 공포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의 신체변화를 들 수 있다. 사람이 극도로 공포에 휩싸거나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자동으로 촉진되어 얼굴이 붉어지거나 심장박동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러한 육체적 반응이 정서적 차원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모델은 인간존재의 각 요소들 즉, 영, 혼, 몸, 지, 정, 의 등의 차원들

은 개념적, 기능적, 혹은 정의적 수준에서만 나누어 질수 있을 뿐 본체론적 혹은 실체론적으로는 결코 서로 분리 되어 질수 없고 서로 너무나 긴밀하게 연관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통전적 전인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²²⁾

유기적 영육통일체인 전인(whole being)으로서의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체계의 차원의 일종의 장(field)속에 존재하며 그 영향을 받는다.²³⁾ 이 모델에서 나타나듯이 통전적 인간에 대한 통합적전인치유의 궁극적 주체는 인간이 아닌 삼위하나님(Triune God), 특히 성령이시다. 성령은 종말의 시대에 죄와 상처 그리고 갈등과 실존적 고통 속에 사탄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실존적 삶의 장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과 돌보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 기독교전인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통전적 전인인 인간의 다양한 차원에 골고루 미쳐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왜곡된 관계를 조화롭게 회복해나가는 것과 연관된다.

III. 닫는 글

기독교상담 분야의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있어 인간과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통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인간을 다양한 차원을 지닌 전인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전인치유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상담 분야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성경에 뿌리를 두는 동시에 상담치유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전적 인간모델은 인간의 다양한 측면 즉 영적인차원, 정신적차원, 육체적 차원, 사회

22) 김성환, “전인치유를 위한 내적치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17-18.

23) 생태체계적 차원의 장(field)은 인간이 살아가는 실존적 삶의 배경으로 사회, 문화, 환경적 차원을 내포한다.

문화환경적 차원 등이 실제적 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되 개념적, 기능적 차원에서 분리적 접근을 추구하는 유연한 시각을 요구한다.

또한 기독교전인치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돌보시는 그 은혜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다. 인간 자신만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인간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에 대한 치유노력의 총합이 아니다. 하나님나라의 신학적 통찰은 통합적 전인치유에 대한 새로운 빛을 던져주며 내실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통합적 전인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영, 혼, 육,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에 골고루 미치는 하나님나라의 도래와 연관된다. 통합적 전인치유는 죄와 갈등과 고통이 있는 실존적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간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 사회문화환경적 차원의 통전적 회복을 추구하는 종말론적인 재창조 사역이며 이러한 점들이 통합적 전인치유접근에 고려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강경미. “기독교영적치료와 심리치료의 통합”.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권 (2003): 113-142.
- 기독교의료위원회. “건강, 치유, 온전함”.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제34권(1990): 188.
- 김남식.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상담과 선교」 제10권(1995): 4-12.
- 김성환. “전인치유를 위한 내적치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한국성경적상담학회, 「성경과 상담」 제6권 (2006): 11.
- 김태수.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의미와 방법”.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권(2003): 169-173.
- 박행렬. “총체적치유목회, 왜 필요한가”.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상담과 선교」 제10권(1995): 40-41.
- 정정숙. “치유상담에 대한 이해”.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상담과 선교」 제10권 (1995): 58-61.
-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신의 신행협회, 2005.
- Aalen, S. “‘Region’ and ‘House’ in the Kingdom of God in the Gospel.” *New Testament Studies* 8(1962): 215-240.
- Achtemeier, P. J. “An Apocalyptic Shift in Early Christian Tradition: Reflections on Some Canonical Evidenc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5, no. 2 (1983): 237.
- Clinebell, H. *Ecotherapy: Healing Ourselves, Healing the Earth*. New York: Haworth Press, 1996.
- Clinton, S. M. “The Foundational Integration Mode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1990): 115-122.
- Collins, G. R. “An Integration View.” In *Psychology & Christianity: Four Views*. eds. Eric L. Johnson & Stanton L. Jon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 Crabb, L. J.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7.

- Eck, Brian E. "Integrating and Integrators: An Organizing Framework for a Multifaceted Process for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 and Christianity* 15(1996): 119.
- Heitink, G. *Practical Theology: History, Theory, Action Domains*. trans. Reinder Bruinsma. Grand Rapid, MI.: Eerdmans, 1999.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5.
- Kummel, W. G. *Promise and Fulfillment. The Eschatological Message of Jesus*. trans. D. M. Barton. London: SCM, 1957.
- Ladd, G. E.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Grand Rapids, MI.: Eerdmans, 1974.
- Louw, Daniel J. *A Pastoral Hermeneutics of Care and Encounter: A Theological Design for Basic Theory, Anthropology, Method and Therapy*. Cape Town: Lux Verbi, 2000.
- Pascoe, J. P. "An Integrative Approach to Psychological and Christian Thought Based on a Christian World View."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8, no.1(1980): 12-26.
- Payne, L. *The Broken Image: Restoring Personal Wholeness through Healing Prayer*. Westchester, IL: Crossway, 1981.
- Ridderbos, H.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ohn Richard de Wit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75.
- Robinson, H. W. *The Body*. London: SCM, 1952.
- Schwartz, G. E. "Testing the Biopsychosocial Model: The Ultimate Challenge Facing Behavioral Medicin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1982): 1040-1053.
- Shostrom, E. L. & D. Montgomery. *Healing Love: How God Works within the Personality*. Nashville, TN.: Abingdon, 1978.
- Wimber, J. *Healing*. Plecentia, CA.: Vineyard Ministries International, 1982.
- Witmer, J. M. & T. J. Sweeney. "A Holistic Model for Wellness and Prevention over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1992): 140-148.

【 Abstract 】

A Study on Integrative Holistic Healing Models - Centered on the Relatedness of the Kingdom of God -

Sung hwan Kim

Kwangshin University

The central aim of this study focuses on proposing an integrative holistic healing model, related to the Kingdom of God, for the purpose of guarantying the identity and efficiency of the Christian holistic healing. Recently, although various types of holistic healing ministries have been performed among many parishioners in the Korean Church, we can not deny there have been a lot of negative effects and victims, which may be due to irrelevant integration of theology and psychology in holistic healing approaches. According to theological examination of anthropology, we notice that a human being should be considered as a whole person, whose spiritual, psychological, physical, socio-cultural, intellectual, emotional, volitional dimensions are so organically intermingled that they cannot be separated in substantial level. In the light of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whole person and the Kingdom of God, which can be used as major theological frameworks of holistic healing in the Christian Counseling, several holistic healing models are explored. Finally, an integrative holistic healing model is established and proposed, in which a whole person is considered as a eschatological being under the recreational work of God. Within this model, the separation of various dimensions of a whole person is allowed only in conceptual and functional level, while the work of the kingdom of God is emphasized.

Key words: whole person, the kingdom of God, integrative holistic healing, recreation, eschatology.